

안원 교육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가치 탐구

김 덕 삼*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안원의 생애와 교육 사상
3. 안원의 비판정신과 현대적 가치
4. 안원의 실천정신과 현대적 가치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의 교육은 경쟁을 잘 하기 위한,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지기 위한 과정의 도구로서 비취지고 있다.¹⁾ 지금의 교육 가운데 어떤 것은 교육이 아닌 실용 그 자체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교육이란 이름을 빌려 상품화시켜 자본주의의 산물로 전략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1)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교육은 기능적, 규범적, 조작적, 준거적으로 정의 내려진다. 만약 교육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사람이 사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행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일 것이다. 이는 '教育'이란 글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의 교육에 대하여 철학적인 접근을 하면, 매 시대와 상황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도덕 과목을 왜 배워야만 하는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이 가장 좋은가,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사와 학생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무엇이 가장 좋은 교육인가란 의문들에(박의수 외 3인(2004),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73쪽)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오늘의 교육이 여기와 지금에서의 최선의 교육이 아니라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것도 있다. 이미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삼포세대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한숨 짓는 인생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황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현대 한국과 한국인의 자화상은 어딘지 불안하다.

교육의 위기는 비단 교육가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 미래의 위기이기도 하다.²⁾ 그렇다고 교육이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교육의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아직 그에 대한 것을 연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지만, 산업혁명의 토대에서 성장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담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의 틀에 대한 문제와 지적이 많아지고 누적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발생했다. 그 발생이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적절한 시점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발전을 이끌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明末清初의 변화 시기를 살면서 개혁적 사상과 실천의 교육을 주장하였던 顏元의 조명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안원은 明末清初의 격변기를 살았던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다. 명대 漢族 국가가 멸망하고, 청대 滿洲族의 異民族 국가가 건국되면서 漢族은 자괴감에 빠졌다.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理學과 心學이 道德만으로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상반되는 실천적 학문인 實學은 조금씩 그 빛을 발휘하고 있었다. 顧炎武, 黃宗羲, 王夫之 등도 그와 같은 계열에 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陸世儀(1611-1672)도 身體力行을 주장하고, 공리공담을 타파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안원이 존재한다.

안원의 남다른 특징은 현실을 중시한 사상과 교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그도 젊었을 때에는 당시 사회분위기에 맞춰 朱子學의 철저한 신봉자였

2) 21세기의 교육 개혁은 개인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시대적 과제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 이해갈등을 조정할 교육리더십의 확립, 교육주체들의 책무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349쪽).

다. 그러나 宋學의 폐단과 불합리성을 깨닫고, 50대 후반에 와서는 朱子學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현실을 중시한 그의 사상과 교육은 그의 習行 교육사상을 통해서 강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안원의 사상과 행동이 현대의 교육 변화에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안원의 교육 사상 가운데 비판정신, 실천정신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안원의 교육적 특징을 비판정신과 실천정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현대 교육에서의 가치를 생각해 보려한다.

안원은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顏元의 출생지 河北省 博野縣의 경우 그를 기리는 祠堂, 전시관을 비롯하여 젊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광장 가운데에는 그의 상이 세워져 박야현의 젊은이들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안원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박사 학위논문 2편, 석사학위논문 2편, 일반논문 10여 편, 전문 서적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³⁾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가 2010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한두 편이 발표되었다. 물론 한국의 성리학 중심의 학문 풍토에서 안원의 입지가 좁은 것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연구조차 적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앞서의 목적 외에도, 안원 사상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안원의 사상이 현대의 교육과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질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RISS에서 2015년 9월 30일 검색. 이상의 통계는 학위논문 128만 편, 국내 학술지 논문 378만 9천편, 단행본 855만 4천 권에서 검색한 수치다.

4)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학의 위축, 성리학 중심의 연구 분위기, 안원의 성향 즉, 程朱理學을 비판하고 반기를 든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 환영받기 힘들었다. 물론 정약용, 박지원, 조식 등이 안원과 비슷한 성향으로서 연구가 많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에 들어서고, 한국인이기에 관심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제외하면, 이이와 이황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2. 안원의 생애와 교육 사상

1635년 명조 崇禎 8년에 안원은 河北省 博野縣에서 태어났다. 자가 渾然, 易直이고, 호는 習齋이다. 청조 順治年間に 秀才가 되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농사와 의학 및 학생 교육에 전념하였다. 특히, 말년인 1696년에 郝文燦의 요청으로 漳州書院을 맡아 후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1704년 清朝 康熙 43년에 사망하였다. 《清史稿·藝文志》등에 나와 있는 그의 저작으로는 朱子 《集注》의 오류를 정리한 《四書正誤》와 《顏習齋先生言行錄》, 《顏習齋先生辟異錄》, 《朱子語類評》, 《禮文手抄》, 《習齋語要》, 《習齋記余》, 《四存編》 등이 있다.⁵⁾ 이상의 8권은 현재 모두 전해진다. 그 가운데 中華書局에서 1957년에 《四存編》標點本을 발간하였다. 《四存編》에는 存學, 存治, 存人, 存性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 그가 남긴 저작은 많지 않지만 그는 정통적인 사상과 다른 형태의 학풍을 만들었다. 이를 계승한 것이 그의 후학 李塏이었고, 강희 18년(1679년)에 이공은 안원에게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 안원과 이공을 일러 사람들은 顏李學派라고 하였다.

혁신적 실천적 사상가인 안원은 유년시절을 사회적으로 주자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26세 때 《性理大全》을 읽었고, 이를 통해 정주이학의 면모를 파악하면서 그 학문을 실천하였다.⁷⁾ 그러나 안원은 명의 멸망과 청나라의 건국을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당시 주류학문인 성리학의 무능함을 목도하면서 그 폐단을 심각하게 비판하였다.⁸⁾ 그래서 안원은 정

5) 그 밖의 자료에 따르면, 안원은 《格物論》, 《宋史評》, 《宋相辯》, 《農政要務》 등을 남겼다고 한다. 王茂 外 3人(1995), 김동휘 옮김, 《청대철학》1, 신원문화사, 462쪽.

6) 劉建國(1981), 《中國哲學史史料學概要》上, 吉林人民出版社, 551쪽.

7) 顏元(1987), 《顏元集》 上·下, 中華書局, 713쪽.

8) 그러한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見人人禪子, 家家虛文, 直與孔門敵對. 必破一分程朱, 始入一分孔孟, 乃定以爲孔孟、程朱兩途”(《顏習齋先生年譜》), 他說: <八股之害, 甚於焚坑>“其闢佛老, 皆所自犯不覺”, 朱子的學術不過是 “禪宗、訓詁、文字、鄉愿四者集成一種人”(《習齋記餘》卷三“寄桐鄉錢生曉城書”) 千百年來, 率天下入故紙中, 耗盡身心

확한 예를 추구하는 청대 학문 연구의 극단적 성격을 대표한다.⁹⁾

명나라가 멸망할 당시 黃宗羲(1610-1695年)는 35세, 顧炎武(1613-1682年)는 32세, 王夫之(1619-1692年)는 26세였다.¹⁰⁾ 반면 안원(1635-1704年)은 10살이었다. 선배 학자들의 연구와 비판을 통해 안원은 당시 사회의 문제와 명왕조의 멸망 원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원은 성리학 위주의 당시 학풍을 비판한 것이다. 명조의 멸망은 왕양명의 학설도 불신하게 했다.¹¹⁾ 또한 당대 학문과 사상의 주류였던 주자학은 孔子의 원시유학과는 동떨어져 현실과 사회에서 괴리된 상태로 존재했다고 안원은 판단하였다.¹²⁾

안원의 사상은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후세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물론 1920년 總統 徐世昌의 지시로 '四存學會'가 北京에 성립되고, 안원의 학술 사상을 연구하였다. 이어서 1921년에 북경에 '四存中學'을 세우고, 안원의 고향인 박야현에 '四存小學'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 그 영향력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았다.

梁啓超도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른바 宋學, 漢學을 둘 다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들 가운데 가장 빼어났으나 그 학문은 끝내 청대에서 번성하지 아니하였다.”¹³⁾ 양계초의 지적처럼 청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안원의 사상은 각광받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실천을 외친 그의 사상은 현실에 실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과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까? 만약 그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것은 그가 비판한 성리학의 공리공담과 다를 바

氣力, 作弱人, 病人, 無用人者, 皆晦庵爲也! (《朱子語類評》)

- 9) Tu Wei-ming(1975), "Yen Yüan: From Inner Experience to Lived Concreteness", In Wm. Theodore de Bary, ed., *The Unfolding of New-Confucianism*, New York: Columbia Press, 511~535쪽.
- 10) 顧炎武와 王夫之 등의 학자들도 당시 理學의 문제점과 유가 본래의 생명력 회복을 주장하였다.
- 11) 카이윙 초우 지음, 양휘웅 옮김(2013), 《예교주의》, 모노그래프, 121~123쪽.
- 12) 이상의 안원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기존의 발표 논문을 이용하였다. 金德三·李庚子(2015), <顏元の 비판정신과 인문학의 반성>, 《儒教思想文化研究》 제62집, 130~131쪽.
- 13) 梁啓超(1987), 李基東·崔一凡 공역,《清代學術概論》, 驪江出版社, 34쪽.

무엇일까?

이러한 것은 결국 청말민국 시기에 이르러 더 큰 외세인 서구의 힘에 눌러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과 관계되고, 서구의 과학과 민주가 전통적 학문을 대체하게 된 것과도 관련되지 않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 안원의 사상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비판을 하지만, 이를 실행할 힘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내재적으로 그의 사상을 수용할 만큼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가 살았던 당시와 현실에는 그의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사상을 받쳐줄 토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셋째, 본질적으로 그의 사상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안원의 생애는 교육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의 교육 사상은 실천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 깊다. 일반적으로 안원과 그의 제자 이공이 만든 안이학파의 교육적 특징으로 翫, 行, 實, 動이 강조되었다. 어떤 면에서 翫, 行, 實, 動은 실천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천정신으로 안원의 교육 사상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안원의 교육 사상을 다루는 연구에서 간과해왔던 안원의 비판정신을 다루었다. 이러한 비판정신이 안원에게서는 당시 시대와 명왕조를 멸망하게 하였던 원인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성리학의 과거 중심의 공부형태에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육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비판을 통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의 실천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원의 교육 사상은 당시 시대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비판에서 도출된 실천의 교육사상으로 체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안원의 교육사상을 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인 실천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판정신으로 구분하여 안원의 교육사상과 현대적 가치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3. 안원의 비판정신과 현대적 가치

안원의 비판정신은 기본적으로 시대적 요청에 기인한다. 한족의 국가 명나라가 이민족의 침입에 망하고 만주족의 국가 청나라가 건국되었던 시점에서 안원은 지식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그의 비판정신에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는 경제적으로는 봉건주의 경제 관계가 쇠락하고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맹아가 싹틀 때였다. 정치적으로는 명왕조가 멸망하고 청왕조가 건국된 시기였기에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함께 교차하여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다.¹⁴⁾

올바른 비판정신은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일의 희망을 기약하면서 사회의 건강한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비판정신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안원의 비판정신은 자연스럽게 명의 패망원인과 이민족 청 왕조의 건국에 근거하고, 이를 그의 생애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교육적 각도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 비판은 크게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의 비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지엽적인 것으로는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한 비판이 되고, 이러한 것의 근원이 되는 정주이학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인 비판에 집중된다.

먼저 근본적인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것은 정주이학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안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릴 적 주자학이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26세에 《性理大全》을 읽고, 이를 통해 정주이학의 면모를 파악하였고, 그 학문을 실천한 것 등이 그렇다.¹⁵⁾ 그러나 그가 57세 되던 해를 전후해 정주학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정주학에

14) 孫培青·李國鈞 主編(1997), 《中國教育思想史(二)》, 華東師範大學出版社, 391쪽.

15) 顏元(1987), 《顏元集》, 713쪽.

대해 공공연한 비판을 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¹⁶⁾ 양계초는 안원을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顧炎武, 黃宗羲, 王夫之, 顏元은 다 같은 ‘王學’의 反動이지만 그 반동의 진행방향은 각각 다르다. 황종희는 시종 왕학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미류의 공소한 이론을 시정한 것뿐이고 고염무, 왕부지 두 사람은 明을 축출하고 宋을 보존하려 한 것인데 고염무는 考證을 높이고 왕부지는 名理를 좋아하였다.”¹⁷⁾ 그러면서 특히, 안원을 가리켜 “안원과 같은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담력을 펴서 程·朱·陸·王을 배척하고 또 傳注考證의 學을 비방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⁸⁾

교육적 측면에서 안원은 명대의 정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동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안원은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의 철학하기를 한 인물이고, 이러한 자세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 유효할 것이다. 그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철학과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명말청초의 변화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었다. 당시의 주자학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 변화 속에, 한족의 국가가 무너지고 이민족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무력하게 작용하고, 명확한 대안과 행동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대의 주류 학문이었던 주자학은 공자의 사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안원은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지엽적인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것은 기존의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그의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사상은 理學, 佛老之學, 科擧制度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데, 주로 전통교육방식 중의 靜坐와 書本教育을 비판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명대에서 청대로 국가 권력과 통치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性理學 위주의 유학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 중요한 이유로써 성리학이 학문적 세계에만 빠져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안원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宋明理學家들은 靜坐가 교육적 효능을 지니고 있어 사려를 깊게 해 줄 뿐 아니라

16) 장원철(2010), <明末清初 顏元의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 《南冥學研究》 제29집, 333쪽.

17) 梁啓超(1987), 앞의 책, 34쪽.

18) 梁啓超(1987), 위의 책, 34쪽.

正覺을 얻도록 도움도 준다고 믿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지만, 안원은 靜坐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도록 만들어 實學을 경시하게 하여 해로움만 만들 뿐 이로운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¹⁹⁾ 그는 비판적 반성의 입장에서 정주이학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주장하였는데, 그 대안은 원래 유가가 가지고 있던 모습, 공자의 가르침, 유가의 근본정신으로의 회복이다.

안원은 당시의 교육방식과 인재선발 제도에 의거해서는 치국경제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당시의 풍조가 고대의 實行을 제일로 여기던 풍조로부터 浮文을 숭상하는 쪽으로 이미 퇴보했음을 지적하였다. 과거제도에 속박당한 지식인들은 학문의 근본 방향을 상실한 채 부귀와 명리를 탐할 뿐 아니라 목숨을 다해 八股文을 읽고 짓느라 元氣는 고갈되고 정신은 마비되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전혀 무관심한 무용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에 안원은 자신이 제창한 학교와 학문으로 科擧와 八股를 대체하려고 하였다. 안원은 교육, 학술, 학교, 인재와 국가의 태평, 백성의 생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안원은 “천하의 모든 학교에 재능과 덕망이 있는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게 하면, 훗날 조정에는 (사리를 잘 분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경제신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令天下之學校皆實才實德之士，則他日列之朝廷者皆經濟臣.”²⁰⁾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전통교육에 있어서 독서를 통한 암송중심의 주입교육과 靜坐를 비판하면서, 활동을 위주로 하는 習動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6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자에게 춤을 가르치고, 돌을 들어 힘을 기르는 것을 가르쳤다. 教弟子舞，舉石習力.”²¹⁾를 하였다. 이러한 안원이 지금의 한국의 교육을 본다면, 그는 그가 비판한 성리학과 같은 선상에서 비판을 가할 것이다. 무력한 성리학이 명대의 몰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한국의 교육은 교육의 파괴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현실 속에 인큐베이터

19) “餘戊申前，亦嘗從宋儒用靜坐功，頗嘗此味，故身歷而知其爲妄，不足據也……故空靜之理，愈談愈惑；空靜之功，愈妙愈妄” 顏元(1987), 《顏元集》, 129쪽.

20) 顏元(1987), 《顏元集》, 404쪽.

21) 顏元(1987), 《顏元集》, 778쪽.

속에만 안주하고 있는 학문은 바깥세상의 외침과 부름에 호응하여 변하지 않으면, 대학의 구조조정처럼 타율적으로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명말에 성리학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교육의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안원의 비판정신을 이어받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를 논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이 사교육 문제다. 그러나 한국만이 유독 사교육이 극성인 나라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과외 교습이 일어나는 양상도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보다는 부유한 가정에서 과외가 더 흔히 이루어지며, 다른 과목들보다 경쟁에서 더 전략적일 수 있는 언어나 수학과 같은 도구 교과에 대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유별난 점이 없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을 어떤 의도로 하는가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유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되고, 우수한 학생에게 더 투자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교육은 매우 경쟁적이고 매몰차다는 데 있다.²²⁾ 이러한 사교육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편적이며 특수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사교육 행위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그 행위를 문제로 보기보다 주어진 사실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없애려 들기보다 그 행위의 경위를 사회정의에 비추어 잘 밝히고 바른 행위 경로에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다. 사교육의 보편성에 주목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가 여부다. 사교육을 통해 바른 가치가 구현되는가의 여부다. 사교육에 돈을 덜 들일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결과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다.²³⁾ 안원의 비판정신은 성리학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지 유학의 근본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에 있어서도 문제의 핵심이 그 비용이나 부담에 있기보다 그것이 '비교육적'으로

22) 강태중(2013), <사교육은 어떤 현상인가>, 김문조 외 공저, 《한국인은 누구인가》, 21세기북스, 462~464쪽.

23) 강태중(2013), 위의 책, 467~469쪽.

호르는 데 있다고 접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면 논의는 보다 생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치 안원이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초기 유가로의 복귀와 이학에서 부족한 실천을 보완하고 習行을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안원이 “잘못된 것을 구원하는 도는 실학에 있지, 공허한 언변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²⁴⁾ 현실을 무시한 비판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비판으로서의 실학정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4. 안원의 실천정신과 현대적 가치

안원의 교육 사상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習行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정신이고, 이러한 실천정신은 안원의 실학정신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원의 실천정신을 다루면서 안원의 습행과 실학정신을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안원의 가치는 그의 지적이 단순한 비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발전적 비판이란 점에 있다. 그는 앞서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천 중심의 교육과 실학 중심의 철학을 주장한다. 안원은 성리학에 대하여 반대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제창하였다.

안원은 性善論에 기울어 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는 입장이다. 안원은 선함을 발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의 습행을 언급했다. 그의 인성론은 理氣一體, 理氣皆天道에 입각한 形性不二이다. 즉, 안원은 理와 氣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性と 形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안원은 이와 기는 모두 天道이고, 성과 형은 둘이 아니며, 모두 天命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성명과 기질은 모두 다르지만 이 모두가 선으로서 기질이 성명의 작용을 바로 잡아 주므로 악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설명에는 그가 반대했던

24) “救弊之道在實學 不在空言”, 顏元(1987), 《顏元集》, 75쪽.

성리학적 논리가 깔려 있다. 성리학을 반대했지만 당시 성리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리학적 사고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악이라는 것도 이끌고 가리우고 습관되고 물드는 ‘引弊習染’의 네 글자가 장난치는 데 기인한다고 보았다.²⁵⁾ 인성은 모두 선하지만 악은 이끌거나 은폐하거나 관습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²⁶⁾ 그래서 六藝를 익히고 실행해야 형의 실천으로 성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⁷⁾ 즉, 육예를 습득하면 성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사람들이 정신을 육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引弊習染’을 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행한다면 인간 본래의 善性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⁸⁾

안원의 사상은 그 사상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처럼 매우 명확하고 투이하다. 단적으로 정리하면 몸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육예를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 인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좋은 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안원은 “내 몸의 전체는 내 성의 작용이다. 내 신체 한 곳이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의 만물은 내 성이 행하여진 것이다. 하나의 사물이 그 정에 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다. 몸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²⁹⁾고 지적하면서 실천과 행동에 근거한 태도를 강조하였다.

사람의 성과 기는 모두 선한 것으로서 후천적인 外物과 습성에 의해 변질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널리 반복하고 익혀서 실행하는 習行은 원래의 선한 성과 기질을 발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육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5) 王茂外 3人(1995), 《청대철학》1, 463쪽.

26) 王茂外 3人(1995), 위의 책, 471쪽.

27) 육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경자(2010), <중국 고대의 육예 교육>, 《윤리교육연구》22, 한국윤리교육학회, 159~172쪽.

28) 王茂外 3人(1995), 앞의 책, 475쪽.

29) “吾身之百體 吾性之作用也 一體不靈則一用不具 天下之萬物 吾性之措施也 一物不稱其情則措施有累 身世打成一片 一滾做功”, 顏元(1987), 《顏元集》 上·下, 中華書局, 129쪽.

같은 맥락에서 안원은 실천의 교육과 방법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習行의 의미를 “學習躬行”, “時習力行”으로 설명하면서 독서를 통한 암송중심의 주입교육과 靜坐를 통한 허구적 수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자발적 행위를 통해서만이 학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원은 “조정은 정사의 근본이다. 학교는 인재의 근본이다. 인재가 없다면 정사가 없다. 朝廷, 政事之本也, 學校, 人才之本也, 無人才則無政事矣.”³⁰⁾고 주장한다.³¹⁾

宋대의 朱熹는 유가의 경전을 모든 이치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치를 깨우치려면 유가경전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6경은 삼대 때의 책이다. 일찍이 성인의 손을 거친 것으로 전부가 하늘의 이치이다.”³²⁾라고 하였고, 또한 “학문을 하는 도리는, 이치를 헤아리는 것보다 앞선 게 없다. 이치를 헤아리는 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다.”³³⁾라고 하였다. 하지만 陸九淵은 유가경전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규명할 수 없다고 하며 “배울 때 진실로 근본을 알아야 한다. 6경은 모두 나를 위한 주석일 뿐이다.”³⁴⁾라고 하였고, 또한 “6경이 나를 풀이하고, 내가 6경을 풀이한다.”³⁵⁾라며 유가경전은 다만 마음의 해설에 불과하다고 하며 주희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王陽明 또한 6경이 天理라는 주장을 부정하게 된다.

淸初에 이르면 주희나 육구연, 왕양명의 주장은 사회적 실효성을 잃게 되고 실학의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陸世儀의 경우는 직접적인 실천행위를 강조하며 공리공담을 경계하였다. 그는 유가경전 외에 수리, 천문, 병법과 관련된 책들도 중시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의 책들의 요체를 파악하기를 주장하였다. 顧炎武, 黃宗羲 등도 역시 공리공담을 비판하여 ‘求實’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 하에 안원은 비판이 비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비판이 되기

30) 顏元(1987), 《顏元集》, 403쪽.

31) 金德三·李庚子(2015), 앞의 글, 135쪽.

32) “六經是三代以上之書, 曾經聖人手, 全是天理.”, 朱熹(1936), 《學規類編·讀經》, 商務印書館, 54쪽.

33) “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朱熹(1936), 《性理精義·總論爲學之方》, 上海古籍出版社, 701쪽.

34) “學苟知本, 六經皆我注脚”, 陸九淵(1980), 《陸九淵集·語錄上》, 中華書局, 395쪽.

35) “六經注我, 我注六經.”, 陸九淵(1980), 《陸九淵集·語錄上》, 399쪽.

위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실천정신으로 대표된다.

안원은 宋儒가 추구하는 愛靜空談의 학습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對應力을 상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정신과 육체 모두가 허약하게 되어 쓸모없는 폐물이 되어 천하사를 그르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³⁶⁾ 그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靜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며, 세상의 진정한 이치는 몸과 마음과 사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학문은 六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원은 이러한 주자학 위주의 학문과 사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다시 공자의 가르침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수동적이고 관찰자적 입장의 학문과 수양을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자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轉世之人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이것은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되 시대와 상황, 즉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개, 안정적인 지위와 자리가 확보되면 안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은 변하기에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刻舟求劍의 틀을 범하게 된다. 당시 성리학자도 자신의 절대적 권위 속에 안일함으로 시대의 변화를 일지 못하고, 아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었기에 안원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원은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의 철학하기를 통하여 당시 성리학의 무능과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안원은 실학적 측면의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書本教育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천적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한 것 등이 그 예다. 그는 理學家들이 천하에 있는 책을 다 읽기만 하면 학문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독서에만 치중한다면 개념적 학습에만 치울 뿐이며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안원은 군사 교육을 중시하였는데, 이 역시도 실천정신의 특

36) 장원철(2010), 앞의 글, 346~347쪽.

정과 관련된다. 군사교육은 고대로부터 중시되었던 현실적인 교육이다. 병법은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병학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도 중시하였다. 안원은 자신의 교육과 교육 철학에서 병학과 군사체육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兵農合一’을 주장했다.³⁷⁾ 이미 시작된 서양 자연과학의 유입으로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대하여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안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명 중엽에 시작된 것으로, 선교사들이 중국에 기독교를 비롯하여 서양의 과학과 서양의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였고, 특히 1583년 明 萬曆 11년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거주하며 서양의 문물을 전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실학적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양문화의 ‘實’은 송명리학의 ‘空’을 반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안원의 교육 사상이 과학기술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³⁸⁾

안원의 이러한 정신은 한국에서의 실용적 실천적 사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한국은 대학구조조정과 학과통폐합 등을 시행하면서 대학에 있는 문학, 사학, 철학 관련 인문학과들이 재편되고 있다. 취업률과 실용학문의 중시로 더욱 거세게 변화하고 있다.

안원은 학교에서 공자의 인륜조직, 사회규범, 도덕적 가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六藝의 교과목 이외에 天文, 地理, 農學, 化學, 治水, 工學 및 兵法와 군사기술에 관한 내용까지도 폭넓게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 자신의 주장을 만년에 漳南書院을 주관할 때 직접 실천에 옮겼다. 그는 서원에 文事齋, 武備齋, 經史齋, 藝能齋 등의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文事齋에서는 禮, 樂, 書, 數, 天文, 地理 등의 과목을 두었고, 武備齋에서는 黃帝, 太公과 孫武兵法, 攻守, 營陣, 陸水諸戰法, 射禦, 技擊 등의 과목을 두었으며, 經史齋에서는 歷代史, 誥制, 章奏, 詩文 등의 과목을 두었고, 藝能齋에서는 水

37) 陳山榜(2004), 《顏元評傳》, 人民教育出版社, 144쪽.

38) 金德三·李庚子(2015), 앞의 글, 134~135쪽.

學, 火學, 工學, 象數 등의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목을 두었다. 이로써 제자들이 德, 智, 體, 美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하였다.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권 때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학과 통폐합 등으로 실용적이고 취업중심을 지향하는 교육을 강조한 것과 같다. 물론, 이것은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안원의 주장과는 같은 같을지 몰라도 속은 다르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웃 일본도 많은 변화를 겪었기에 안원의 성찰과 고민이 더 중요한 때다. 일본 정부도 국공립대학 개혁을 시도하면서 인문학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과학 정신을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협조하여 대학을 개혁하고 있다. 동기는 명확하다. 세상이 변하면서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이에 따른 숙련인력을 요구하는데 대학은 이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주와 구직자 간의 기대 불일치가 일어났다.³⁹⁾ 안원의 지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書本교육은 젊은이들을 실학을 경시하도록 만들고 文弱하고 무능한 서생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말하면서, 의사가 모든 의서를 읽었다고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⁴⁰⁾ 또, 예를 들어 琴을 배우는 경우에 琴譜에 熟通하였다고 해서 琴의 연주를 잘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譜는 그것에 의거해 실천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을 때에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書本교육은 실천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로 나타났을 때에만 그것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즉, 이론을 무시한 실천도, 실천을 무시한 이론도 모두 위험하다. 양자가 잘 균형되어 때와 장소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인기위주의 정치 논리에서 진행되는 겉껍데기 따라 하기 형태는 교육의 근본

39) '일본이 전인교육 아닌 직업교육으로 옮겨가는 이유', <한국경제·사설>, 2015.08.05. 31면.

40) “譬之於醫，有妄人者，止務覽醫書千百卷，熟讀詳說，以爲予國手矣，視診脈制藥針灸爲粗不足學。書日博，識日精，一人倡之，舉世效之，岐、黃盈天下，而天下之人病相枕，死相接也。” 顏元(1987), 《顏元集》, 50쪽.

41) 장원철(2010), 앞의 글, 350쪽.

을 흔들기에 위협하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올바로 되어야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고,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어야 정치가 올바로 잡히고, 정치가 올바로 잡혀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원은 교육을 정치의 기초로 보았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안원은 학교에서 재능과 덕망을 고루 구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조정은 사리를 잘 분별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經濟臣’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²⁾ 그래서 국가도 잘 다스려지고 천하도 태평하여 백성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와 천하가 곤란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이 올바로 서야하고, 교육은 재능과 덕망을 고루 구비한 인재를 배양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원이 성리학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공자의 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 교육의 의미를 상기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고래로부터 교육은 당시 사회를 이끌고 변혁시켰으며,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창출하였다. 시대에 기생하며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안원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여기와 지금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안원은 단순히 변화하는 시대에 매너리즘에 파묻힌 程朱理學의 문제점을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대안으로서 실천적 학문을 제시했다. 앞에서 언급한 공리공담을 비판한 것이나, 스행철학을 중시한 것 등은 공자 사상의 근원으로 회귀함에 있다. 그래서 안원은 불가와 노장의 현실 이탈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안원의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편향된 면이 있지만, 당시 중국 현실을 볼 때 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사상적 기초 하에 그 자신의 독특한 ‘習行’ 교육 관념을 제시하게 된다.

42) 앞의 주20 참고, “令天下之學校皆實才實德之士, 則他日列之朝廷者皆經濟臣.” 顏元(1987), 《顏元集》, 404쪽.

안원은 본인이 당시 학문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힘써 실천 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음악에 정통하고 서예에 능통하며, 기마에 능숙하고 활을 잘 쏘고 무술에 정통하였으며, 어릴 적에 의술을 배우고 병서를 연마하며, 천문 역법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하는 일생이었다.

5. 나오는 말

사상이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대부분의 사상은 정신적 담론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그 정신적 사상이 현실의 정치와 마주하게 될 때 사회의 변화는 매우 크게 (때론 무섭게) 일어난다. 이미 역사에서 볼 수 있었고, 7,80년대의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에 마르크스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그의 사상과 달리 현실에서 왜곡되면서 정치력과 만나 새롭게 존재한다. 이미 마르크스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 진시황 때 법가의 사상, 한대의 유가, 송명 때의 성리학 등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비판할 것은 어찌면 사상 자체가 아니라 사상 자체를 운용하고 이용하는 정치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권력자에게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원의 지적은 당시 성리학을 향하고 있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정치와 권력자의 행위를 향하고 있어야 했다. 문제는 성리학 자체가 아니라 성리학을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권력 계층이었다.

그런데, 어디 그 권력계층이 그리 호락호락한가?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그 정도의 비판에 꿈적이나 할 것 같은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점을 알고 人間世에서 눈을 돌려 廣漠한 無何有之鄉에서 놀면서, 세상사에 不譴是非로 임하려 하였던 莊子は 자신과 세상의 한계를 이미 파악했지 모른다. 楊朱도 爲我主義라고 비판받지만, 자기 발의 터럭 하나 뽑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자기 다리의 터럭을 뽑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장자와 같은 맥락에서 양주 자신이 이미 세상의 이치와 변화의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해박야 안 될 것을 알기에 일찌감치 마음의 정리를 끝낸 것 아닐까?

그럼, 안원은 왜 그랬을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리 영향력 있을 만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행위를 한 것도 못 된다. 어쩌면 조그마한 마을이나 꾸미면서 小國寡民의 체계에서나 어울릴 인물과 사상이 아니었을까? 그럼, 누가 용감하게 거대한 권력과 기존의 세력에 맞설까? 누가 무모하게 보이는 螳螂拒輻의 돈키호테가 될 수 있을까?

역사는 무모하지만 무모한 행위에서 만들어졌고, 돈키호테처럼 엉뚱하지만, 그리고 사마귀처럼 미약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것이 점철된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역사였다. 毛澤東이 얼마 안 되는 조무래기를 이끌고 대장정에 나설 때만해도 아무도 그의 행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농부로 농사나 지어야 할 劉邦이 漢이라는 제국을 건설할지도 예측하기 힘들었다.

역사에는 이처럼 우연하거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들도 小國寡民 정도의 규모나 다스리면 적절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늘 있는 일상에서 보통 일어나는 상식일 뿐이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도전과 준비, 거기에 상황과 우연까지 가미된다면 어쩌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안원에게 부족했던 점은 무엇일까? 안원의 사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안원이 본받으려 했던 공자를 생각한다면 공자는 과연 어떠한가? 그 역시 자신의 사상을 펼치려고 안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유십국하며 떠돌지 않았던가? 하지만 끝내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그는 백면서생이 되지 않았던가? 마르크스는 자신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가로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은 그를 떠나 새롭게 재해석되며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공자의 사상도 그를 떠나 후대에 전해지면서 그와 상관 없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의 術으로써 오랫동안 중국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던

가.

이로부터 생각해보면, 안원이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했음에도 그 자신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의 책임을 안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는 정치가도 통치자도 아니다. 그저 사상가이고 교육가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들에게서 어떤 가시적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자칫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구인지 모른다.

실용, 실천, 실리가 중시되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공리공론을 일삼는 사상에 대한 연구는 당분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물론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위축도 클 것이다. 이런 위축의 상황에서 안원과 같이 실천적이고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특히, 공자와 맹자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의 진정한 사상을 성리학적 성향의 추상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를 비판하고 공맹의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을 발굴 개발한다는 측면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재조명될 가치가 크다.

안원의 비판정신과 실천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그의 習行은 단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적 능력의 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 즉 지성과 덕성 및 미적 감성 등의 내적 정신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안원은 공자를 지칭하면서 “聖人學教治 皆一致也”라고 언급했다. 이는 공자께서는 배움과 가르침 그리고 다스림이 모두 일치하였다는 것이다.⁴³⁾ 안원이 진정한 儒者가 되려면 건강한 정신뿐만 아니라 강건한 육체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몸소 실천한 것처럼, 현대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강건한 육체의 조화,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원이 주관했던 장남서원에서의 교육방법이 비록 4개월 만에 끝났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이전의 봉건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방법이었다. 이것은 당시 主流의 서원교육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의 실천정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대를 앞서간 先進性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43) 顏元(1987), 《顏元集》, 39쪽.

비록 안원의 사상이 感官을 통한 지식만을 너무 중시하면서 이론적인 사유와 이해를 소홀히 한 점, 개인의 실천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성적인 인식을 경시하여 오히려 중국 고대의 인식론으로 되돌아 간 점이 있지만,⁴⁴⁾ 그의 習行 教育관념은 이전 교육의 폐쇄성과 비실용성을 넘어서고 당시 서양의 과학과 선진사상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오랜 역사 속에서 철학은 선인들의 과거와 거기에서 존재했다. 나와 여기와 지금에 빗대어 생각하면, 과거와 지금, 거기와 여기는 많이 다르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와 우리도 변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 나와 우리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현의 가르침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나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 속에 내재된 인간의 본성은 성현의 울림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안원이 실천하였던 것처럼 존재론적 차원에서 여기와 지금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육과 학문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 參考文獻 >

- 강태중(2013), <사교육은 어떤 현상인가>, 김문조 외 공저, 《한국인은 누구인가》, 21세기북스.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박의수 외 3인(2004),《교육의 역사와 철학》, 동문사.
- 王茂 外 3人 공저(1995), 김동휘 옮김, 《청대철학》1, 신원문화사.
- 이나미(2013), 《한국사회와 그 적들》, 추수밭.
- 카이영 초우 지음, 양희웅 옮김(2013), 《예교주의》, 모노그래프.
- 孫培青·李國鈞 主編(1997), 《中國教育思想史(二)》,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顏 元(1987), 《顏元集》上·下, 中華書局.
- 梁啓超(1987), 李基東·崔一凡 공역, 《清代學術概論》, 驪江出版社.
- 劉建國(1981), 《中國哲學史史料學概要》上, 吉林人民出版社.
- 陸九淵(1980), 《陸九淵集·語錄上》, 中華書局.

44) 양희웅(2006), <顏元の 格物致知에 관한 연구>, 《陽明學》 제16집, 420쪽.

朱 熹(1936), 《學規類編·讀經》, 商務印書館.

朱 熹(1936), 《性理精義·總論爲學之方》, 上海古籍出版社.

陳山榜(2004), 《顏元評傳》, 人民教育出版社.

Tu Wei-ming(1975), "Yen Yüan: From Inner Experience to Lived Concreteness",
In Wm. Theodore de Bary, ed., The Unfolding of New-Confucianism, New
York: Columbia Press.

金德三·李庚子(2015), <顏元の 비판정신과 인문학의 반성>, 《儒教思想文化研究》
제62집.

양희용(2006), <顏元の 格物致知에 관한 연구>, 《陽明學》 제16집.

이경자(2010), <중국 고대의 육예 교육>, 《윤리교육연구》22, 한국윤리교육학회.

장원철(2010), <明末清初 顏元の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 《南冥學研究》 제29.

한국경제(2015), '일본이 전인교육 아닌 직업교육으로 옮겨가는 이유' <한국경제·사
설>, 08. 05.

'일본이 전인교육 아닌 직업교육으로 옮겨가는 이유', <한국경제·사설>, 2015.08.05.
<http://www.riss.kr/index.do> 2015년 9월 30일 검색

< Abstract >

It is an object of this study to find out education ideological features of innovative thinkers Yan Yuan in late 17 century of Ming and early Qing dynasty and based on this to study what kind of value Yan Yuan's thought have in Korean education. Additionally it is aimed that Yan Yuan's thoughts are known in the academic world, and also expanded in-depth research, contributing to solve the Korean education problem.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Yan Yuan's educational thought are regarded as ethology, criticism and practical philosophy(習行哲學). Feature in ethology is that human nature is originally gently but dyed evil by habit(引弊習染) so performing and practising the six arts help correcting. In the spirit of Criticism Yan Yuan blamed the incompetence of Neo-Confucianism and claimed to go back to Confucius' Tao. He claimed to look at the new reality back to the

fundamentals criticizing Confucianism in Han and Song Dynasty. In the spirit of practical philosophy, he pointed out the emptiness in the concept of Neo-Confucianism and presented the education of practice and experiment.

Yan Yuan grew in an atmosphere of the childhood when Neo-Confucianism had a significant social impact. But Yan Yuan criticized Neo-Confucianism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ractical and realistic study. These points are still meaningful in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currently highlighted is necessary by emphasis on action and practice based on the assertion of Yan Yu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ave correct criticism spirit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 of education as Yan Yuan pointed out the problem on education blamed the incompetence of Neo-Confucianism and claimed to go back to Confucius' Tao at that time. For the more, practical philosophy spirit is worth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Department consolidation of recent university.

What our society need now is to practice the meaning of education back to the root of education as Yan Yuan blamed the incompetence of Neo-Confucianism and claimed to go back to Confucius' Tao. Education from ancient times changed and leded the society of that times, and created new value and methods. Being parasitic on the age and ignoring the needs of the times is not a suitable education. A key element of education is the correct reflection on self and here now as Yan Yuan did.

Key words: Yan Yuan, Qing Dynasty, Education, criticism, practice spiri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7. 31.	2016. 9. 20.	2016. 9. 21.	2016. 9. 25.	2016. 9. 30.